

LG화학, 2007년 수익성 양호하다!

CJ투자증권, NCC 기여에 정보소재도 호조 ... 목표주가 5만9000원

CJ투자증권은 1월18일 LG화학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목표주가는 4만7000원에서 5만9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희철 애널리스트는 “2006년 4/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9.3% 늘었다”며 “특히, 석유화학 부문은 2006년 초 LG대산유화 합병 후 NCC부문 이익 기여도가 높아졌고, 옥탄올 등 일부제품의 수익성도 급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07년 석유화학 부문의 NCC 관련 감가상각비는 2006년에 비해 약 600억원 줄어들 전망이어서 감가상각비 감소분이 하반기 경영실적에 반영되면 이익 기여도가 급증할 것”이라며 “또 정보소재 부문도 하반기 뚜렷한 이익모멘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희철 애널리스트는 “이런 점을 감안해 2007년과 2008년 주당순이익 추정치를 각각 6.6%, 13.4%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올린다”고 말했다.

또 “1/4분기께 점진적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돼 투자의견도 상향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18>